

##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

일시 : 2020년 2월 11일(화) 16:30

의사일정 및 심사된 안건

1.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의 건
4. 2020년도 예결산분석 추진계획의 건

○ (임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을 맡은 방한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서는 의사지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없이 선임토록 하고, 두 명 이상 추천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기후 위원) 네 홍기후 위원입니다 한분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외부에서 추대를 하는게 좋다는 판단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연륜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최진혁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최진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진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진혁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쑥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위원님들도 또 사실은 이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외부에서 맡아주는게 좋겠다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신거 같구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배경에서 좀더 충남도의회가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런 부분을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시는거 같아서 저희들이 책임감이 무겁고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정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무튼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위원장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같이 우리가 일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하는 그런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절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선 위원) 위원장님은 외부에서 선임하셨으니까 부위원장님은 아무래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우리가 내부에 의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야 그런 측면에서 부위원장을 전익현 위원님으로 모시고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전익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익현 위원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여러모로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책임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과 함께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예산분석담당관의 위원회 추진경과 보고 후 위원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충청남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해왔는가.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고 심의할 때 어디에 기준을 뒀서 하고 있는 것인가? 충남도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재정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 (홍기후 위원) 지방의회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42명 충남 도의원 활동, 예산이라는 건 전문적이고 깊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도민들과도 쉼여 있고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마다 전문적인 분야는 있으시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판단할 때 분석하고 파악하고 결정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과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 있습니다. 의원님들간의 충돌도 일어나고 생각도 다르고 조직체계가 만들어지는 것도 예산분석을 하고 의결하는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으로 좀 더 잘 분석하고 잘 판단해서해서 정책에 담아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애매모호한 상황,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 등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은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전부 큰 틀에서 놓고 볼 수 있는 건 어렵고 의원님들이 쉽고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우리 위원회가 만들어서 전달해야 하는 역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떠한 소중한 경험을 했는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였는가.. 이런것들을 토대로 문의를 해주시면 외부에 있는 자문위원님들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그 동안 해오시면서 이런건 어렵더라 그것을 어떻게 타계해야 할 것 인가... 소통을 하셔서 외부 위원님들이 전달을 해주야.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 전문가이시긴 한데 전체로 놓고 보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갈등사태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재정민주주의 기초를 다져놓는다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토론을 하면서 우리 외부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최두선 위원) 기능이 좀 불명확해서 조례를 봤는데 과연 단순한 재정에 대한 자문 기능인지 예산 결산을 심의할 때 핵심 포인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의원님들에게 배포해서 예산심의를 실용적으로 하는 측면, 자문 기능만 할 것인지 정책방향 제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책방향까지 제시할 기능을 할 것인지 여기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 사례를 들었을 때 단순한 자문 기능만 있었다... 실무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 역할만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보완 문제 플러스 제도 개선이나 정책방향 제시까지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논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유태현 위원) 이렇게 큰 미래 목표를 가지고 출범하는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에 합류를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정책자문위원회라는 명칭과 관련해서 의회 측면에서 보면 세입과 세출 부분을 집행부와 구분하기 위한 작명한 측면이지 않나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다룰 내용은 최초의 편성된 예산안 검토 부분 결산 부분을 들여다 보는 부분을 넘어서는게 아닌가.

도정과 관련된 부분을 포괄해야 하지 않는가.

충남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최근에 10년 안팎에 그런 위치에 놓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방향 설정하는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서울 경기 경남 예산정책위원회 꾸려나가고 있는데 충남도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의 자문방식인데 실질적 기능과 관련해서 본청, 지방교육청 간의 예산운영의 부분에서 연결고리 부분을 좀더 내실화하고 서로 중첩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교육청과 본청간의 예산 운영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예산 부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 같이 교육청 예산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앙 단위에서의 재정동향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도 본청은 물론이고 의회에 예산운용 부분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동향 부분을 살피는거 대해 이부분도 고민을 해야되지 않느냐,

도의회 역할 부분 예산운용 전반에 대해 내실화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면에서 예산 심의내지는 운영부분과 관련해서 자문하는 부분이 여전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더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해야할 기능의 범주를 어느 카테고리 까지 가야할 것인지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정원 위원) 예결산 자문기능, 당연한 얘기

의원 전문성을 보완하는 매뉴얼 작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열어놓고 보는게 좋겠습니다.

일년에 두 번 모이고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한정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효성이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기능을 범주화 시킬 수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 (김갑배 위원) 운영 조례에 나온 자문 기능을 하되 과연 두 번 만나고 필요시 몇 번 만날까를 해놓고 그리고 우선 충남도의

재정을 파악하는 정도로 해서 자문기능을 했으면 합니다.

정책방향 제시나 제도 개선도 상당히 좋겠지만 그 단계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우리 임기가 2년인데, 1년은 지켜보면서 예산안 공부를 하고 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들을 소통하고 심도있게 나아가는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 (이선영 위원) 우선은 전체적으로 스캔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오래된 관습에 따른 예산을 진단하고 일몰사업 선정하고 그런게 필요합니다.

한 두번 들여다봐서 금방 나오는건 아닙니다. 최근 2~3년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다 들여다 봐야 하는데 일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진짜 확장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도지사님이 복지에 관련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복지를 정책에 넣으려고 지사님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런면에서 예산 분석을 제대로 하면 그런 것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석하다보면 저절로 정책제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이 나올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 (유태현 위원) 기본적으로 조례에 의한 자문에 대한 방향이 기본이며 나머지 영역 부분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의원님들 생각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제안하고 예산 전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오랜 시일이 걸리고 숙련해 나가는 절차 과정이 요구됩니다. 도의원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재정쪽에 가장 성실하신 전문가를 모셔서 말씀을 듣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두선 위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큼니다. 예산편성을 하나로 묶어서 하느

나 나눠서 하느냐 분리발주를 되냐 안되냐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정보제공을 해서 심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위원회 역할이나 재정이 방만하니 효율적으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숙아내는 자문을 해달라는 건지 정해야 합니다.

○ (홍기후 위원) 예산의 현실화와 도청과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맞물려 갈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할 것 같습니다.

○ (최두선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익현 위원) 쉽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하자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조례를 보면 의장이 자문을 권할 수 있다.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실무에 필요한 사항, 충청남도과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에 관한 사항, 예산 기금 여기에 대한 자문을 의장이 요구할 경우 자문에 기능이 있고 실무는 예산분석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문예시를 보면 예결산 분석 대상사업 선정 방향에 대한 자문이다. 예결산분석 보고서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결산에 관한 분석을 하고 예산안에 대한 분석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함으로 인해서 도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자문안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의 주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어진 틀에서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가는게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일년에 일반적으로 계획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기 연 2회 필요하면 3~4번 다섯 번 정도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간적인 한정과 범위내에서 의견을 내서 의장님이 그것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데 제안을 낼 수 있는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 자문의견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의견 나오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2020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해나갈 수 있는 기능의 영역 범주로서 정리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이의가 없지요?

지금 논의된 것들을 우리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2020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자문의견으로 의결된 것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20년도 예결산분석 계획의 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의사일정 제4항

예결산분석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분석담당관님의 결산분석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를 받고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 보고 후

그러면 이어서 예결산 분석 계획에 대한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한일 위원) 방한일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업무와 관련해서 비용추계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산에 올라왔던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짜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점검을 해서 그게 진짜 필요하다면 업무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맙습니다. 비용추계 업무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 (박종철 예산분석2팀장) 작년에 1억 6천이라고 시스템 구축 비

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가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한 시점인지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일단 삭감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에서 국회에서 도입한 사례를 보면 재정에 건전성인 업무 효율화 간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거나 집행부 예산으로 해서 시군이나 공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보라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그런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가령 의원님들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서 시연회를 하고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인식들을 제고해서 향후에 도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한일 위원) 그러시면 담당관님께서 실무자와 함께 서울시에 출장을 가서서 충남 프로그램을 몇 개만 시연을 해보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아실거 아니예요?
- (박종철 예산분석2팀장) 그런 방법도 있지만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시연을 통해서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쪽으로 와서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직접 올려보고 운영하는 시스템 흐름도를 한 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방한일 위원) 그러시면 우리 의원님들 합동연수를 할 때 그럴 때 와서 하면 저희들한테 시연을 해주시면 상당히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 같아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도입해야죠. 불필요하다면 가치도 없지만 서울시에 서도 앞으로 한다면 필요하니까 도입된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에서는 서울시 의회에 경험도 있으실테고 그 부분을 충분히 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일정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태현 위원) 이게 시스템이라는데 그냥 고정된게 아니고 매년 그걸 반영해서 매년 시스템이 보수내지 재구축되어야 한다

는 얘기가 아닙니까.

- (박종철 예산분석2팀장) 구축비가 1억 6천이고 매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한 천오백만원 정도 구축비의 10%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 (최두선 위원) 시스템 구축 되기 전에도 비용추계는 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입법할 때 재정이 수반되는 것들은 다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뭐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주면 예산 심의 담당관실에서 정상적 추계가 되었는지 검토해보면 되거든요.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시스템 구축은 그 다음에 별개로 하는 것이지 조례가 만약 시행이 된다면 앞으로 조례 개정안이나 재정안에 비용추계가 다 붙어서 추진되어야 하겠지요.
- (방한일 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걸 보면 앞으로 시스템이 절차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추계는 다 일원화 시키는거로 되는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집행부께서는 거기서 하고 우리 도의원 발의는 예산분석담당관실에서 수기로 하는건 지금도 하고 있지요.
- (방한일 위원) 이원화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시스템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 가지고 양쪽에서 활용하면 안되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그 부분도 집행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군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시군까지 해주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예산분석담당관) 시스템에서 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모여서 한 번 무슨 시스템인가 한 번 들어봅시다. 다음달에 시연회를 한 번 해봅시다.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금 한 번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 업무에 관한 내용은 그런 정도로 얘

기가 될 것 같구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한정된 시간 속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첫날이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심도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첫날이니까 이정도로 워밍업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2020년도 예결산분석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문의견으로 오늘 나온 얘기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을 2020년도 예결산분석 추진계획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날 모임에서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과 예결산분석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예산분석담당관계서는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업무 추진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데 불구하고 그냥 인사말 하고 가는 줄 알았더니 진지하게 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예산결산 문제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의장님이 이쪽에 힘을 실어 주신 것 같고 그만큼 우리의 책임감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시간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다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충청남도예산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출석위원(10인)

최진혁, 전익현, 김기서, 방한일, 이선영, 홍기후, 김갑배, 유태현, 윤정원, 최두선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총무담당관	신현성
의사담당관	국정덕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진

예산분석담당관	구자열
예산분석1팀장	김정미
예산분석1팀	이병근
예산분석1팀	강도연
예산분석2팀장	박종철
예산분석2팀	김효영
<충청남도교육청>	
예산과장	방승만
예산1팀장	김대영
의회·대외협력팀장	유영호